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기공사의 인식도 조사 연구

강 월, 임 형 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기공실*

Dental technician's recogn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Wol Kang, Hyung-Tek Lim*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Dental laboratory of Dentist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dental technician's about including denture into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This study carried out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from June 10, 2012 to June 20 by having research subjects as 230 dental technician. Except 22 copies with incomplete response, 208 copies were used as the materials of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cognition of dental technicia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denture was 48%, but there was a low recognition on the details. The rates of dental technician who approved of the inclusion of denture into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respectively stood at 59%.

Conclusion: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should be extended to dental medicine in a manner to satisfy dental technicians, dental service providers and receivers. Also, further studies for the extending coverage of the details are needed.

◉Key words : dental technician, dentu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ecognition

교신저자	성명	강 월	전화	010-9557-7771	E-mail	wsdtaluna@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12번지 3층 UP치과기공소					
접수일	2012. 10. 1		수정일	2012. 12. 21		확정일	2012. 12. 26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에 유소년인구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가 되며, 2060년에는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0년에 조사된 한국 인구의 65세 이상 구성비는 11.0%였으나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는 1.9%로 선진국의 평균 4.3%보다 낮았지만, 2050년에는 14.5%로 선진국의 평균 9.5%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3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건강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2011).

노인의 전신건강은 구강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구강건강이 불량한 사람들은 전신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보고가 있다(Richmond, 2007). 또한 전신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구강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cker, 2002). 반대로 치아를 상실한 노인들은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건강영양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len PF, 2005).

또한 치아의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인관계와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있다(Gunhild B et al, 1995).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56%가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을 호소했고, 65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87.5%로 나타나 노인의 구강건강 개선이 시급한 상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복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인틀니 보험적용 및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의치보철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김철신과 김용진, 2010), 2009년에는 차상위 건강 보험 전환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구강보건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의치보철 사업으로 인해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치과의로 공급자와 치과기공사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색하고, 정책 수립의 보조적인 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다음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치과기공사는 230(92%)명이었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22명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총 208(83.2%)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는 성별,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시간, 경

력, 근무형태 및 급여에 관련된 사항 및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 요인에 관하여 구조화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혼합하고,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문항,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인식 12문항과 그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문항이 12문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대상 무료의치보철 사업 관련문항 6문항,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관련요인으로는 20문항으로 총 57문항이었다. 틀니 보험화에 대한 인지여부와 의견을 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전혀 모른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측정하였다.

1)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설문 문항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의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Table 1).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인식도 문항은 5문항으로 각 문항이 1-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87로 문항의 신뢰도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진료단계별 기공료가 불포함 된 내용에 대한 인식도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이 1-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료단계별 기공료가 불포함 된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78로 문항의 신뢰도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Category	Questions	Cronbach's Alpha
recogn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5	0.87
recognition that a dental technician charges are not included in the step treatment	5	0.78
Total	10	

3. 연구 방법

설문조사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와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 P<.05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71.2%, 여성이 28.8%로 각각 나타났으며, 연령은 30대 미만이 40.4%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3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6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근무형태의 경우 치과기공소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분야는 일반보철이 77.9%, 의치가 15.9%, CAD-CAM이 12.0%, 교정은 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에서는 5~9년이 41.3%, 10~19년이 17.3%, 5년 미만이 13%, 20년 이상이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148	71.2
	Female	60	28.8
Age	<30	84	40.4
	30~39	79	38.0
	40~49	38	18.3
	49<	7	3.4
Final academic career	College	135	64.9
	University	54	26.0
	Graduate school	9	4.3
Type of Dental laboratory	Dental laboratory	14	71.6
	Dental clinic laboratory	47	22.6
Function Part	General Prosthetics	162	77.9
	Orthodontic	6	2.9
	Denture	33	15.9
	CAD-CAM	25	12.0
	Others	9	4.3
Career	< 5	27	13.0
	5~9	86	41.3
	10~19	36	17.3
	19 <	20	9.6
Total		208	100

2.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치과기공사들의 59%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7월에 시행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는 50.5%가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치과기공사들은 학회, 협회, 대학, 근무기관(63%)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 아홉 가지의 세부사항 인지도에 관해서는 '만 75세 이상'은 27.4%, '틀니 보험수가'는 28.4%, '진료단계별 포괄방식'은 27.4%, '기공료 불포함'은 43.3%, '임시의치 포함여부'는 27.4%, '임시의치 보험수가'는 14.4%, '틀니 교체주기'는 29.3%, '무상수리 기간'은 22.6%, '무상수리 횟수'는 20.2%만이 인지하고 있었다(Table 3).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세부 인지내용에 관

한 의견을 조사한 항목에서는 '심평원 틀니 기공료가 23만원으로 부족하다'가 65.9%, '기공행위가 진료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80.3%, '진료단계별 기공행위와 기공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가 93.8%, '기공료는 진료단계별 포괄수과와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가 52.4%, '기공료를 단계별 급여화 한다면 포괄 단계별 진료행위에 따른 각 단계종결 시 기공료를 받아야 한다'가 83.2%, '완전틀니 급여 대상 환자에게 1~2개월 사용을 위한 임시틀니가 필요하다'가 97%, '완전틀니의 교체주기는 5년이 적당하다'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상수리기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4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3. Recogn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Category	N	%	
recognition of Insurance enforcement	know more	48	23.1
	know	57	27.4
	normal	79	38.0
	do not know	16	7.7
	know nothing of	3	1.4
the means of recognition	society, association	131	63.0
	acquaintance	3	1.4
	specialist	53	25.5
	newspaper	8	3.8
	TV, internet	13	6.3
the content of recognition			
over the age of 75	know	57	27.4
	normal	66	31.7
	do not know	82	39.4
dentures insurance charges	know	59	28.4
	normal	55	26.4
	do not know	90	43.3
diagnosis related group system	know	57	27.4
	normal	51	24.5
	do not know	98	47.1
dental technician charges are not included	know	90	43.3
	normal	42	20.2
	do not know	72	34.6
content to include temporary denture	know	57	27.4
	normal	49	23.6
	do not know	100	48.1
temporary denture charges	know	30	14.4
	normal	53	25.5
	do not know	119	57.2
denture replacement cycle	know	61	29.3
	normal	48	23.1
	do not know	95	45.7
warranty period	know	47	22.6
	normal	34	16.3
	do not know	123	59.1
warranty number	know	42	20.2
	normal	39	18.8
	do not know	124	59.6
Total	208	100	

3. 65세 이상 무료틀니 사업 인지도 조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대상 무료의치보철 사업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보통이다’가 35%, ‘모른다’가

32.7%, ‘잘 알고있다’가 15.4%, ‘전혀 모른다’가 8.2%, ‘매우 잘 알고있다’가 7.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근무하던 기공소에서 무료의치 보철 사업대

상 기공물을 제작한 경험이 없는 치과기공사는 57.7%였고, 제작한 경험이 있는 치과기공사는 62명으로 응답한 치과기공사의 29.8%였다.

틀니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치과기공사 중에서 틀니를 무료로 제작한 경우는 30.6%, 15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

우가 24.2%, 6~1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는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수리 기간을 요청받은 연수로는 1년이 30.6%, 3년이 21%, 2년이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ree dentures business of over the age of 65

Category	N	%	p-value	
recognition	know nothing of	17	8.2	
	do not know	68	32.7	
	normal	73	35.0	
	know	32	15.4	
	know more	15	7.2	
the making of denture	experience	62	29.8	
	inexperience	120	57.7	
received dentures insurance charges	free	19	30.6	
	10,000~50,000	4	6.5	
	60,000~100,000	11	17.7	*
	110,000~150,000	5	8.1	
	150000 <	15	24.2	
request of warranty period	1year	19	30.6	
	2year	11	17.7	
	3year	13	21.0	*
	4year	0	0	
	5year	7	11.3	
Total	62	100		

결측값 제외, Chi-square test, *p≤0.0001

4. 노인틀니사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요인

현재 근무지의 근로환경 중 시급히 개선해야할 요인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능) 초과 근무시간 '은 41.8%, '짧은 제작기간' 34.6%, '급여'는 30.3%, '불확실한 출퇴근 시간'이 26.9%, '작업환경'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이후 치과기공사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능)

'재제작 증가'가 51.1%, '초과근무시간' 40.1% '불량보

철물 발생률 증가'가 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이후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9.8%였고, 사업 실시 후에 급여 상승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48.6%, '보통이다'가 23.6%, '그렇다'가 23.1%로 나타났다(Table 6).

조사대상자들에게 거래하는 치과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6.8%, '보통이다'가 17.3%, '그렇다'가 8.2%

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5. Expected to change due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multiple responses possible)

	Category	N	%
necessary improvement	salary	63	30.3
	overtime work	87	41.8
	working environment	50	24.0
	short production period	72	34.6
	uncertain about work hours	56	26.9
Expected to change due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overtime work	162	40.1
	decrease in revenue	34	8.4
	defective products increases	101	25.0
	remake increase	89	51.5
	career change	23	5.7
Total		208	100

Table 6. Expected to change due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Category	N	%
work amount	increase	166	79.8
	no change	31	14.9
	decrease	3	1.4
increase in pay costs	yes	48	23.1
	no change	49	23.6
	no	101	48.6
prepared in conjunction with the Dental	yes	17	8.2
	usually	36	17.3
	no	139	66.8
Total		208	100

IV. 고 찰

잔존 자연치아수가 12개 정도는 있어야 노인이 밥과 김치를 잘 먹을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잔존 자연치아수는 11개로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최윤희, 2009).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일수록 치주질환 유병률 및 저작 불편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관리본부, 2009),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아

질수록 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있어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기공사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 치과기공사들은 5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 등의 연구에서 치과의사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25%만이 원한다고 응답하여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기공사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장용석 외 3인, 2005).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50.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무료틀니 사업이 22.6%만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세부 인지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항목에서는 '기공행위가 진료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80.3%, '진료단계별 기공행위와 기공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가 93.8%, '기공료를 단계별 급여화 한다면 포괄 단계별 진료행위에 따른 각 단계종결 시 기공료를 받아야 한다'가 83.2%로 나타나 기공료와 기공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빈도가 높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의치를 제작할 때 필요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의치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VG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기공수가를 정하는데 공적보험자의 대표기관과 기공소 대표기관, 지역 치과기술협회, 지역 건강보험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상이 이루어진다(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1).

해외사례를 통해볼 때 우리나라도 기공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틀니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로는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다'가 79.8%였고, 치과기공사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40.1%로 나타났다. 2010년도 이선경 등의 논문에서도 노인틀니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에 치과기공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가 61.2%, 근무시간 증가가 35.0%로 나타나 노인틀니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변화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이선경 외 3인, 2010).

그러나 노인틀니 사업 실시 후에 급여 상승을 기대하나

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48.6%, 거래하는 치과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66.8%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점점 고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치과기공사와 치과의료공급자, 치과의료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기공사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치과기공사와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2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치과기공사는 230(92%)명이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22부를 제외하고 208(83.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4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59%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2.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의 세부 인지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기공행위가 진료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에 80.3%, '진료단계별 기공행위와 기공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에 93.8%, '기공료를 단계별 급여화 한다면 포괄 단계별 진료 행위에 따른 각 단계종결 시 기공료를 받아야 한다'에 83.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 현재 치과기공사들은 근로환경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41.8%가 응답하였고,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이후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79.8%, 치과기공사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이 40.1%를 차지하였다.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a population of medically compromised elderly people. Community Dental Health 19, 90-97, 2002.

Richmond S, Chestnutt I, Shennan J, Brown B. The relationship of medical and dental factors to perceived oral general health. Community Dental epidemiology 35, 89-97, 2007.

Statistics Korea.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0~2060, 4, 2011.

REFERENCES

Allen PF. Association between diet, social resource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edentulous patients. J Oral Rehabil, 32(3), 623-628, 2005.

Choi YH.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residual teeth and masticatory function. Th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8.

Gunhild B, Alfred HG. A review of masticatory ability and efficiency. J Prosthet Dent, 74, 400-403, 1995.

Jang YS. Dentist's opinions in the dental field of present health insurance claim and review.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2005.

Kim CS, Kim YJ. The stud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Dental policy association, 26-37, 2010.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ational nutrition survey 4, 2009.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KDTA newspaper, 348, 3, 2011.

Lee SK, Park YD, Hwang KS, Kim YH. Dental technician' perception investiga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old person's denture in 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32(1), 35-43, 2010.

Locker D, Matear D, Stephens M, Jokovic A. Oral